

# 개 회 사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행사를 빛내주신 김인영 의원님과 정홍식 국장님, 그리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수원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행사가 원만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체신부 당국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회원님들께 행사를 주관하게 된 책임자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금년 6월로 네번째가 되는 정보문화의 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화사회로의 조기진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민들의 인식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화를 추진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을 통한 정보통신수단의 발달로 대변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각국이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바야흐로 국제적인 정보화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산업은 특히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 국가의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학·연·관할 것 없이 모두가 정보화사회로의 조기진입을 위해 과거 그 어떤 산업분야에 기울인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보통신산업의 육성·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정보통신회선이 지방중소도시 구석구석까지 뻗히고, 정보통신용 단말기의 보급이 확산일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정보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정보통신산업의 거듭되는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도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보화사회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회 제분야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혜택을 일반국민들이 스스로 누리고, 또 필요한 정보를



鄭 溶 文  
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

각종 정보통신수단을 통해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의 도래를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의 인식제고를 바탕으로 한 정보이용능력의 배양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정보화는 또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그 기본골격을 갖추었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위해 경제·문화·교육 등 전 분야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편향된 구조를 하나하나 탈피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지역의 정보화는 중앙과 지방을 하나로 연결,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가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동안 한국속의 주변지대로 방치돼 왔던 개별지역들 하나하나를 나라의 중심권으로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정보화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마냥 기다려서는 이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국은 당국대로 정보화의 진척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또 일반국민들은 정보화된 사회의 시민으로서 이에 상응한 자질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역민의를 대변하는 김인영 의원님과 주무부처의 정책당국자이신 정홍식 국장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나와계신 만큼 여기서 나오는 현명한 의견들이 앞으로 지역정보화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 자리가 정보화에 대한 경기지역민들의 인식을 더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고,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값진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행사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분들과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 자리가 정보화에 대한 경기지역민들의 인식을 더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고,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값진 토론의 장이 되기를...**

